



어제 저녁

조개구이 먹고 싶다고 대학 친구가 불러서 인근 조개구이 전문점을 찾다가 발견한 곳.  
해신탕이 주력인 곳이지만 조개구이집 찾기도 어렵고 그냥 여기로 갔다.

식당은 충무로역 5, 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한영빌딩 지하 1층에 있다.  
한영빌딩 밖에도 작지만 간판이 있으니 주변 계단을 찾아 내려가면 된다.  
식당과 같은 층에 미술관?으로 보이는 곳이 있어서 묘했다.



사장님이 두 명에서 알뜰상(중)은 많다고 하셔서 알뜰상(소)로 주문했다.



먼저 나온 반찬들과 사이다 소주.

키위 드레싱 샐러드부터 시계방향으로 피꼬막/굴뱅이 무침, 생선튀김, 생와사비이다.

바삭 튀긴 저 생선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다. 조기인가?

두 마리 나왔는데 바삭하게 잘 튀겨져 뼈째로 다 씹어먹었다.





해신탕 도착!

모시조개, 가리비, 새우, 오징어, 꽃게, 낙지, 팽이버섯, 단호박, 전복, 기타 등등...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다.

사장님이 청양고추 추가 여부를 물어보셔서 추가했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국물이 맑고 졸이기 전까지는 좀 심심해서 청양고추의 칼칼함이 필요했다.

사장님이 낙지랑 오징어 찢어주시다가 실수로 가리비 하나를 떨어뜨리셔서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면서 두 개 더 갖다주셨다...! 감동의 눈물 8-8



요것은 새우 튀김. 소스는 타르타르소스 + 겨자로 보인다.  
반찬보다 살짝 뒤늦게 나온 걸 보니 서비스인 것 같다.  
바삭바삭한 게 아주 맛있었다 ^^





마지막으로 칼국수 사리까지!

양이 정말 많아서, 잘 먹는 사람끼리 가도 두 명에서 알뜰상(소)면 충분할 것 같다.

가격이 살짝 나가긴 하지만, 오랜만에 해산물로 배 채워서 좋았다 ㅎㅎ



#### 어부의전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7길 28 한영빌딩